

케익하우스 미호 월곡점

하얀 옷 차려입은 우리 동네 ‘빵집’



1. 흰색 메인컬러는 갈색 빵을 더욱 도드라지게 한다. 천정과 벽면을 따라 흐르는 간접조명은 실내 전체를 부드럽고 은은하게 감싼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벽면을 따라 캔디와 쿠키가 진열돼 있다. 2. 케익하우스 미호 월곡점의 깔끔한 외관. 작지만 눈에 확 띄는 점포에 초점을 맞췄다.



케익하우스 미호는 지난 7년 동안 경희대학교 정문을 곳곳하게 지켜낸 파수꾼 같은 존재다. 젊은 대학생들의 기호에 딱 맞는 세련된 케이크와 대학병원을 찾은 문병객들이 망설임 없이 선택할 만큼 폭넓은 선물류 제품 덕분에 ‘미호’는 입맛 까다롭기로 유명한 대학가에서 10년 지기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다.

경희대 ‘미호’가 탄생한지 꼭 7년 만인 지난 8월 21일 ‘형을 똑 닮은 동생’ 미호 2호점(대표 원애자)이 탄생했다. 한창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월곡동에 자리 잡은 2호점은 대학가에 위치해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한 1호점과 달리 주택가다운 따뜻함과 알콩달콩함이 듬뿍 묻어나는 점포다.

미호는 제과점 단골 컬러인 브라운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화이트 톤의 옷을 차려입었다. 노란빛이 은은하게 감도는 흰색은 가족 품처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준다. 깔끔한 배경 덕분에 매장 안을 가득 채운 빵들은 더욱 선명하게 도드라진다. 흰색 아랫단을 덧입히고 불필요한 라인을 없앤 쇼케이스는 케이크의 화려한 데코레이션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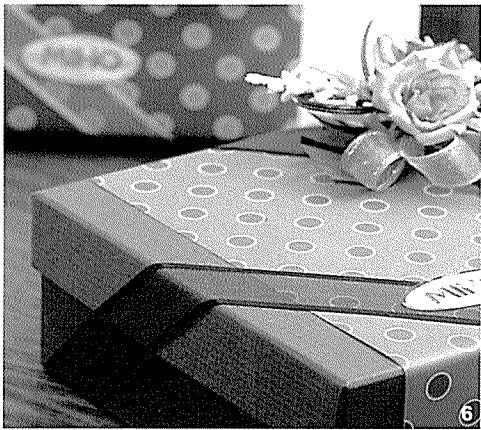
강렬한 직접 조명을 배제하고 벽을 타고 흐르는 간접 조명을 비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 것도 이 곳 인테리어의 큰 특징. 복층구조로 설계해 구름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는 듯한 천장 조명도 독특하다. 무엇보다 제품의 원래 색깔을 해치지 않아서 좋고, 고객 시선을 화려하기만한 상젤리제에 빼앗길 일 없어 효과적이다.

미호 월곡점에는 롤케이크가 눈에 띄게 많다. 무스케이크에는 아직 선뜻 손 가지 않는 이 지역고객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시트에 어울리는 맛의 무스크림을 듬뿍 퍼 발라 돌돌 말아놓은 롤케이크는 “지금까지 먹던 롤케이크랑 다르다”며 큰 호감을 보이고 있다. 어긋하게 재단한 최민식 생산부장의 센스도 롤케이크의 동글동글 재미난 모양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카레가루에 볶은 참치를 가득 충전해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린 ‘카레참치빵’, 망고·체리·멜론 등 색깔 옷을 입은 미니 버터 롤케이크도 인기 만점이다.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깔끔한 적립카드부터 손은 많이 가지 않으면서 전문가의 손길이 닿은 듯 깔끔하고 세련되게 처리된 포장에 이르기까지 ‘케익하우스 미호’의 고객사랑은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작지만 색깔 있는 베이커리 ‘미호’가 꾸려갈 두 번째 이야기가 몹시 궁금하다. **B**

글 · 김미선 기자 | 사진 · 주현진

TEL : 02)911-2008 위치 : 서울 성북구 월곡동 두산아파트 304동 앞



3_ 서로 손이 척척 잘 맞는 미호 공장 식구들. 최민식 생산부장 진두지휘아래 움직이는 3총사는 모두 책임자급의 경력을 자랑하고 있어 생산 효율성이 매우 높다. 4_ 출시와 동시에 '미호'의 인기메뉴로 올라선 카레참치빵. 주황기에 위치해 식사대용의 조리빵 수요가 많다. 5_ 오픈 행사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악어빵.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악어'와 눈이 마주치는 고객들은 "재미나는 제과점"이라며 즐거운 마음으로 쇼핑을 시작한다. 6_ 간단한 공정으로 연출한 고급스럽고 세련된 쿠키상자 포장. 7_ 작은 공간이지만 케이크 쇼케이스와 빵 매대가 적절히 배치돼 작다가 보다 아늑하기만 느낌이다. 8_ 미호가 정성스럽게 마련한 고객 적립카드. 심플함을 강조한 디자인 때문에 젊은 고객들이 '저렴스럽게' 지갑에 넣어 다닌다. 9,10_ 여러 가지 롤케이크.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만 무스케이크보다 훨씬 인기 좋은 아이템이다.

